

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1월 2~3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베트남 1월 경제 동향

- 베트남, 아시아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부상
 - 영국계 투자은행 HSB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의 2025년 경제성장률이 8.02%를 기록한것은 동남아를 넘어 아시아 전체에서 성장세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설명
 - HSBC는 특히 지속적인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25년 교역액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USD 9,280억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제 성장을 이끈 것을 높이 평가
 - HSBC는 공공 투자 집행 가속화와 견조한 수출 회복력을 바탕으로 올해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을 6.7%로 전망했으며, 앞서 싱가포르 UOB(United Overseas Bank)는 '26년 경제성장률을 7.5% 전망함
- 베트남, '26년 무역흑자 목표 USD 230억
 - 베트남은 올해 수출 8% 성장과 함께 무역흑자 15% 증가한 USD 230억 달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
 - 지난해 베트남은 무역수지 USD 200억 흑자를 내며 10년 연속 무역 흑자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이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는 거시경제 안정과 투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현재 무역은 여전히 소수의 주요 시장에 집중돼 있다며 시장 다변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
- '25년 베트남 소비자물가지수(CPI) 3.48%로 목표 통제 범위 하회
 - 통계국은 지난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을 주택 · 전기 · 수도 · 연료 및 건축자재(+6.08%), 식품 · 외식서비스(+3.27%),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13.07%), 기타 재화 및 서비스(+4.78%), 가전제품 및 소비재(+1.66%), 교육(+2.15%) 등 6가지 상품 · 서비스군의 상승으로 지적

② 베트남 정부 동향 및 정책

- 베트남 ODA 및 양허성 해외차관 관련 국가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회의를 주재한 부이탄 손 부총리는 공적개발원조(ODA)와 양허성 해외 차관을 포함한 공공 투자를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주요 부문의 인프라 및 기술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힘
 - 재정부에 따르면, '26년 주요 국가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해외 차입 규모는 VND 146.3조(USD 55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팜 민 쩐 총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협력 조기 협상 완료 지시
 - 팜민찐 총리가 주재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총괄위원회 4차 회의에서 닌투언 1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 러시아 측과의 투자 · 협력 협상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지시
 - 또한 닌투언 2 원전 건설을 위한 첨단 기술 보유 파트너 선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
- 싱가포르 UOB, 호치민 국제금융센터 내 본사 설립계획
 - 싱가포르계 은행그룹 UOB(United Overseas Bank)가 베트남 호치민시 국제금융센터(IFC)에 본사를 설립하는 최초의 외국계 은행이 될 전망
 - UOB 부회장 겸 CEO는 베트남 부총리 면담에서 UOB는 동남아에서 전략적 시장으로 여겨지는 베트남 내 사업 확장을 위해 베트남 자회사 자본금을 20% 증액한 VND 10조(USD 3.8억)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호치민 IFC 입주 계획을 전달
 - UOB는 1992년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한 최초의 싱가포르 은행으로, 1995년 호치민시에 외국 자본 100%의 지점 개설
 - 베트남 IFC는 호치민과 다낭에 각각 설립될 예정이며, 현재 군대 은행(MBbank), 비엣콤은행(Vietcombank), 비엣틴은행(Vietinbank) 등 현지 은행과 함께 싱가포르 현지 금융사들이 호치민 IFC에 사무소 개설에 대한 관심을 표명

③ 베트남 기타 동향

- 비엣텔, 베트남 최초 반도체 칩 공장 착공
 - 베트남 최대 통신회사 군대통신그룹(Viettel)은 하노이 호아락하이 테크파크에 27ha 규모, 32나노미터 공정 기반의 첫번째 반도체 칩 생산공장을 착공
 - '27년 말까지 투자 및 건설을 완료하고, '28년 기술을 이전받아 시범 생산에 나서는 것이 목표
 - 베트남 정부는 이번 비엣텔의 반도체 공장이 반도체 칩 연구·설계·테스트 및 생산을 위한 국가적 인프라로 발전해 향후 항공우주, 통신, 사물인터넷(IoT), 자동차 제조, 의료기기, 자동화 등 현지 산업 분야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 칩을 자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호치민시, 국제 경기 개최 가능한 초대형 스포츠복합단지 착공
 - 베트남 부동산 개발기업 썬그룹(Sun Group)은 옛 투득시 빈쭝 지역 약 186ha 부지에 락찌액 국립스포츠복합단지 착공
 - 총 사업비는 VND 145조(USD 55.2억)으로 PPP·BT 방식으로 추진 예정이며, 5~8년 내 완공 목표
- 호치민시 메트로 2호선 착공
 - 호치민 메트로 2호선 사업은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당대회를 기념해 시당국이 추진해 온 주요 교통인프라사업 중 하나로, 도시 철도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공공투자 방식과 국회 결의안 188호에 명시된 특별 제도가 적용
 - 호치민 도심 옛 1군 벤탄역부터 북서부 관문인 옛 12군 탐르엉 차량기지까지 총연장 11.3km(지하 약 9.3km), 총사업비 VND 55조(USD 21억) 예정이며, '30년 완공 목표
 - 본 사업은 타코 그룹(Thaco)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EPC 계약으로 진행 예정
- 빈롱성 30MW 규모 선프로풍력발전단지 상업운전 시작
 - 베트남전력공사(EVN)와 20년간 발전차액보장계약

□ 일반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① (베트남) 철도산업단지 건설 추진

< 사업 개요 >

- (발 주처) 베트남 건설부
- (사업비) VND 17.3조 (USD 6.5억)
- (사업내용) 총 면적 250ha, 철도차량 및 부품 생산·조립, 유지보수·수리, 기술·소프트웨어 요소까지 포함하는 철도 산업 통합 플랫폼 구축
- (추진계획) 미정

- (주요사항) 하노이 남부 쭈옌미(Chuyen My)와 옹화(Ung Hoa) 지역에 건설 예정인 철도 산업 단지는 정보, 신호 및 전력 공급 시스템과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점진적으로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베트남 철도공사는 철도산업단지에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숙달하고, 고속철도용 부품 및 예비 부품을 점진적으로 생산하며, 기술 이전을 받아 기계 및 장비에 투자하여 시속 200km 미만의 국가 철도 시스템용 기관차와 객차 제조 계획
 - 궁극적인 목표는 2040~2050년까지 전동차의 국산화율을 80%까지 달성하고, 북남고속철도 노선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예비 부품을 생산하는 것

② (베트남) 호치민시-동나이성 연결 깃라이대교 착공

< 사업 개요 >

- (발 주처)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 (사업비) VND 20.6조 (USD 7.8억)
- (사업내용) 총 연장 11.6km(주교량 3km), 왕복 8차선(자동차 전용 6차선)
- (추진계획) '26.1. 착공 / '29. 개통 목표

- (주요사항) 1건설총공사(CC1)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PPP · BT 방식으로 투자 예정
 - 호치민 투득시 깃라이와 동나이성 년짜 신도시를 연결하는 깃라이 대교는 완공시 깃라이 폐리의 교통과부화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